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2화 선정에 든 부처님



이 때 하늘의 범천왕(梵天, Brahma-deva)은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급히 내려와 부처님을 간곡히 설득하여 본다.

“부다는 이미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넜으나 아직도 그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세간의 뜻이 있는 의사(義士)가 얻은 이익을 남에게 주어 고르게 하는 것처럼, 부다도 이제 얻은 법으로 마땅히 세상의 범부들을 구해야 할 것이요.”

돌연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자 자신의 눈을 지키며 부다의 행동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던 무칠린다 용왕은 가만히 물으로 올라 부다의 곁으로 다가갔다. 부다의 곁에 자리 잡은 용왕(龍王) 무칠린다(Mucalinda)는 그

에게도 <화엄경(Avatamsaka - Sutra)>을 들려주기를 청하여 들으니 금강좌의 보리도량(菩提道場, Bodhimanda)에서 처음 법을 말할 때로부터 중각강당(重閣講堂, Vajshali)까지 모두 일곱 장소를 옮기며 아홉 번에 걸쳐 설하였다 한다. 부다로부터十方세계(十方世界)의 모든 법이 인연(因緣)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는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화엄경>을 듣고 감동한 무칠린다는 그의 몸을 바쳐 부다의 선정(禪定)을 깨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부다가 해탈(Vimoksha Vimukhya, Mukti)을 얻은 후 다섯 번째로 자리를 옮기며 또 다시 칠일간의 선정에 접어들 무칠린다 호수에는 벌써 이레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또 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그러

자 무칠린다 용왕은 모처럼 모시게 된 부다가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 갈까 두려워 감히 부다의 몸을 일곱 겹으로 칭칭 감고 머리로서 부다의 머리 위를 덮어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며 부다가 선정에 머물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 쏟고 있었다. 이때 무칠린다 용왕의 보호막을 뚫고 마왕 파피야스(Papiyas)가 슬며시 부다의 마음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은근한 목소리로 부다에게 말한다

“세존(世尊)이시여, 무량겁에 정진 고행 끝에 비로소 소원하시던 해탈을 얻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얻으셨으므로 열반(涅槃)에 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라옵건대 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곧 열반에 드시옵소서.”

이 때 부다는 결심을 굳히고 파피야스에게 대답한다.

“파피야스야, 나를 이 욕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 이제사 겨우 정각을 성취하였고 그 모든 것이 애초부터 중생들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었으니 아직 세상에 나의 법을 전해보지 못하였고 어찌 열반에 들겠는가.”

마왕 파피야스는 더 이상 부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감지하고 울면서 재축천의 마상으로 돌아갔다.

마왕 파피야스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범천(梵天, Brahma) 사합파티(Sahampati)가 부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가다국에서 밝혀진 법(法, Dharma)은 더럽혀진 자들에 의해 생각된 더러운 것이므로 이제 부다의 깨끗한 법으로 불을 밝혀달라”고 주문한다.

마가다의 더러운 법이란 두말할 것 없이 바라문교(Brahmanism)라고 말하는 것으로 불교는 탄생부터 아리안계의 종교와 그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成道) 후 일곱 장소에서 칠일씩 모두 사십구일간의 오랜 선정에 잠기며 여러 천신들과 대화하며 또 그 자신이 얻은 정각을 몇 번씩이고 다시 검증, 재검증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은 없다. 스스로 일체지(Sarvajnata, 一切智)를 얻고 아라한(Arhan, 阿羅漢)이 되었다. 부다가 무칠린다 연못 근처의 작은 못에서 오래간만에 그의 몸을 깨끗이 씻고 있을 무렵,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두 명의 장사꾼들이 있었다. 이들은 북방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장사를 위한 긴 행렬을 이끌고 있었다.

